
	<b>보 도 자 료</b>		수도권매립지 종료	
	배포일자 2022년 2월 21일(월) 총 3매	 환경특별시 인천		
담당 부서 환경기후정책과	담당자 • 환경정책팀장 한종원 ☎440-3511 • 담당자 임철순 ☎440-3513			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**인천시 등 8개 기관, 글로벌 종합환경연구단지 장기 발전에 힘 모은다**

- 인천시, 국립환경과학원 등 8개 기관 '글로벌 종합환경연구단지 장기 발전을 위한 협약' 체결 -

- 환경전문 복합 연구단지 조성, 지역사회 활성화, 환경개선 위해 한 자리에 모여 -

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 인천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내 8개 관계기관과 함께 글로벌 수준의 환경연구 단지 장기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.

인천광역시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인천 소재 종합환경연구단지를 글로벌 수준의 환경전문 연구, 산업, 인력양성 등을 아우르는 교류의 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등 8개 관계기관\*이 『글로벌 종합환경연구단지 장기 발전을 위한 협약』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\* 참여기관현황 : 8개 관계기관

연번	기관명	기관성격	비고
①	인천광역시	종합행정기관	지자체
②	인천광역시 서구	종합행정기관	
③	국립환경과학원	환경 연구전문기관	환경부 소속기관
④	국립환경인재개발원	환경 교육전문기관	
⑤	국립생물자원관	생물자원 연구전문기관	

⑥	한국환경공단	환경 관리전문기관	환경부 산하기관
⑦	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	환경종합 관리기관 (매립지 관리·운영)	
⑧	한국환경산업기술원	환경(기술) 전문관리기관	

『글로벌 종합환경연구단지』는 환경연구산업의 메카로서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공항과 인접해 있어 국내외적으로 환경정책 홍보에 최적 지임에 불구하고 그간 활용도가 미미한 수준이다. 따라서 인천시 등 8개 기관은 연구단지 발전방안과 활성을 위해 관계기관간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.

이날 협약식에서는 한정에 환경부장관과 박남춘 인천시장 등 8개 관계 기관 장이 참석했다.

이번 협약은 글로벌 종합환경연구단지 장기발전과 지역 환경개선 및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·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주된 내용은 ▲ 환경전문 복합연구단지,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친환경 생태단지, 환경연구·산업의 국제화 및 교류의 허브 공간 조성 ▲ 환경기반 지역경제·산업 활성화, 각 기관별 발전방안, 체계적인 육성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 장기발전 마스터 플랜수립과 사업추진 ▲ 참여기관 공동 추진사업 적극참여 및 상호 연계 프로그램 개발, 지역 산·학·연 연계 환경기술 산업화 지원, 시설 및 인프라 공동 활용 ▲ 국제환경 연구·기술교류 및 교육활성화, 환경보전 및 환경정책 홍보 등 관계기관별로 적극 지원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.

이날 박 시장은 “오늘 협약으로 글로벌 종합환경연구단지가 탄소중립형단지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”면서 “인천시가 서구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강소특구 지정과 조성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0시40분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'인천시 인터넷방송'(<http://tv.incheon.go.kr/>) '포토인천'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